

문화재 등록 예고에 목포 재정비 사업 '제동'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공장 터 산업사적 가치 높아...계획 수정 불가피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사업 부지 내 대규모 공장 터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 무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선내화(옛 목포공장)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 예고에 따라 사업 대상지 변경·조정 불가피해졌다.

1938년 세워진 공장은 1997년까지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는 내화(耐火) 건축자재

를 생산하던 곳으로, 국내에 내화재 생산 시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원료 반입부터 분쇄·혼합·성형·건조·소성(燒成·열을 가해 구움) 등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산업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 수렴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목포항 관문 지역 재정비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공장의 문화재 등록 예고로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장 부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애초 서산·온금지구 38만 8642㎡를 사업 대상지로 했으나 조합 설립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상지를 1구역(20만2067㎡)으로 축소했다. 조선내화 옛 공장 부지 면적은 1구역 사업 대상지 가운데 2만6296㎡나 된다.

이 때문에 문화재 등록이 확정되면 도시 규모를 축소하는 등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앞서 전남도는 목포시가 제출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계획 변경안과 관련, 경관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 층

수는 25층에서 21층으로, 18층은 15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목포시 안팎에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익성에 장담하기 어렵게 되면 자칫 사업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목포시는 주민 이의 신청 여부 등 문화재 등록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등록 동향을 지켜보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잔대



자주손물



일엽초



투구꽃

신안 비금·도초도, 토종 약용식물 집단 자생

바위손·잔대 등 50여종

낮은 산에서 이례적 발견

신안 비금·도초도에서 바위손·잔대 등 약용식물 50여종의 집단 자생지가 발견됐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비금도 선왕산(255m)과 도초도 큰산(265m) 일대 등산로 주변 식생을 조사한 결과, 향암·향염 효과

가 탁월한 바위손, 바위솔(와송), 일엽초, 세뿔석취 등이 자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약용식물로 각광받는 천문동, 넉줄고사리(골쇄보), 삼주, 용담, 바다나물, 투구꽃, 기린초 등 내륙의 깊은 산과 무인도 등에 드물게 분포하는 식물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바위손과 잔대는 전남에서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개체가 집단으로 자생

하고 있었다. 해발고도가 낮은 산에 이렇듯 다양한 약용식물이 자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등산객이 늘고 있는 선왕산 일대를 약용식물을 이용한 힐링 등산코스로 개발하면 각광받을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전남지역 산야와 섬의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림자원조사단을 운영, 광릉요강꽃·한란·나도슴바·공작재관·석곡 등 환경부 법정 보호

종(I, II급)의 서식을 확인하고, 유용자원 800여종을 확보했다. 이 중 300여종에 대해 '산림자원 추출물은행'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오송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섬지역은 다양한 난대수종 및 약용식물 등이 서식하는 토종 산림자원의 보고"라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 정세에 발맞춰 토종 산림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종자원 조사·수집을 확대하고, 기능성 물질의 추출·이용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 옹포에 산림문화체험관 재개관

다도·목공체험 시설 등 보완

국내 최북단 녹차밭과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산림문화체험관이 25일 익산시 옹포면 임접리 인근에 재개관했다.

옹포산림문화체험관(면적 477㎡)은 숲카페, 다도 체험실, 목공 체험실, 제다 체험실 등을 갖추고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활동 증진을 물론 산림과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익산산림조합은 녹차밭을 감상하는 산책로와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다도와 목공체험 시설을 보완했다.

익산시는 상수도, 목재계단, 숲 카페 집기, 산림문화유물 등을 지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힐링 장소이자 체험·휴식공간으로 자리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j@kwangju.co.kr

'우애·나눔·보은'...남원 흥부제 27일 개막

흥부의 가족 사랑과 우애·나눔·보은을 기리는 '제 25회 흥부제'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흥부전의 배경지인 남원시 인월면과 아영면, 사랑의 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흥부 출생지로 알려진 인월면과 인근 아영면에서 열리는 고유제와 농악놀이 등 터울림 행사로 축제의 맛이 오른다.

프로그램은 나눔·체험행사, 경연·공연행사, 연계행사 등 총 4개 분야 20여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나눔·체험행사는 흥놀(樂) 한마당, 먹거리 장터, 흥부나눔 알뜰장터가 마련됐다.

경연·공연으로 터울림, 뮤지컬 흥부, 전북애로보극연대회,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연계행사로 제25회 금과 강도전 전국관소리경연대회, 남원 국제도예캠프, 분재전시, 흥부체험마당 등이 진행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갯벌과 벌교 문화의 만남...꼬막축제 보러오세요



지난해 열린 '벌교꼬막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꼬막 까기, 꼬막잡기 등의 체험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

꼬막잡기 등 행사 다양

가을 남도의 벌교꼬막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벌교읍 전변과 진석리 장양갯벌체험장 일원에서 열린다.

벌교 꼬막은 대하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문학기행 등 벌교를 찾은 관광객에게 배움을 수 없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 태백산맥에서는 꼬막을 '간간하고, 졸깃 졸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비릿하기도 한'이라고 표현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갯벌과 벌교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꼬막까기, 꼬막 삶고 시식하기 등 체험행사와 소설 태백산맥 무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기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대형 꼬막비빔밥 만들기, 꼬막단체줄넘기대회, 꼬막노래자랑 등은 27일 오후 2시부터 벌교읍 벌교리에서 열린다. 꼬막 요리 이벤트, 바퀴달린 날베타기대회 등이 진행된다.

셋째날에는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벌교촌! 벌교인! 그리고 어울제'가 펼쳐지고 꼬막 요리 이벤트가 열린다. 장양갯벌체험장에서는 갯벌 헤리줄다리기, 꼬막잡기, 날베타기 등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태백산맥 인물공예품, 꼬막채취 사진·도구 등이 전시되고 소원등 달기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보성군은 또 해설사가 동행하는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 스태프투어'를 운영,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벌교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쉐보레 사줍니다"

군산 한국지엠 지키기 나서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GM)을 돕기 위해 군산 지역 시민, 기업, 지자체단체들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산에는 세단 크루즈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올란도를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해 한국지엠이 만약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경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지엠 임직원과 배우자들과 함께 군산시 주요 거리에서 '릴레이 홍보'를 통해 쉐보레 판매 촉진과 공장 정상화를 다짐하고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군산지역 내 한국지엠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GM 차 사주기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멈춘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을 경우 지역 경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군산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대포 기업 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이다.

반면, 정작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첫 임금 협상을 시작한 뒤 5개월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굽지 않다.

한국GM은 작년까지 최근 3년간 2조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역시 적자가 많게는 약 8000~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안근 2803㎡ 환경중음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상가주택 임대 반2, 거실, 기계10평 2천만원에 68만원
-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26㎡ 주택 130㎡ 수리해이함 1억5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만20천원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촌주택 60여평 펜베나루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양계장 허가부지 정흥을 15000여㎡ 축소하기도 있음 6억9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암군 심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초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흥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행·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 북구 분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전, 농성초교옆문앞

"금 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셸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